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소영<sup>1</sup> · 김은영<sup>2</sup>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sup>1</sup>,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sup>2</sup>

##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Roh, So Young<sup>1</sup> · Kim, Eun Young<sup>2</sup>

<sup>1</sup>Ph.D., Candidate, Doctor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nam University, Namwo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6 married immigrant women in Jeollanamdo,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1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Results:** The participants' mean age was 28.3 (range=20 to 49). Depression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age, spouse occupation, occupation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were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pouse occupation, which explained 42.9% of total variance. Acculturative stres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all ( $\beta=.41, p<.001$ ). **Conclusion:**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hat could assist in reducing the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ndicates that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Key Words:** Immigrant,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2011년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이르는 총 34,235건으로 2009년보다 9백 건 증가하였다. 그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26,274건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여성과 혼인 비중은 국외를 포함한 전국 8.1%로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4.3%), 전북(11.1%), 제주(11.0%)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

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특히 전남은 결혼목적의 입국이 92.3%로 가장 많았으며, 읍·면 지역 88.4%로 동 지역 75.65%보다 높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의 83.7%가 결혼목적으로 입국해 남성 결혼이민자의 31.7%보다 현저히 높았다(Kim et al., 2010).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요구된다.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상업적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교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결혼 당시 한국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주요어:** 이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우울

**Corresponding author:** Kim, Eun You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nam University, 720 Kwangchi-dong, Namwon 590-711, Korea.  
Tel: +82-63-620-0106, Fax: +82-63-620-0103, E-mail: eunbi1109@hanmail.net

**투고일:** 2012년 6월 9일 / **수정일:** 2012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6일

가 많아 입국과 동시에 남편과 그 주변 환경을 볼 때 자신의 기대와 현저한 차이로 많은 충격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Yang et al., 2012). 농업의 특성상 일 년간의 노동이 투자된 후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실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촌에서 주부가 가사일뿐만 아니라 농사 일 돕기에도 노동인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도 높은 스트레스를 예견 할 수 있다(Nam & Ahn, 2011). 이러한 문화에 대한 충격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요인들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Kweon & Park, 2007), 충분한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여 저체중(Hwang, Lee, Kim, Chung, & Kim, 2010), 신체화 등 신체적 건강문제와 불안, 편집증, 정체감 혼란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유발하게 된다(Bhugra, 2004; Huang & Mathers, 2008; Kim, 2011; Lee,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교사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문화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Kim, Lee, & Kim, 2011; Koh & Rhee, 2011).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45.5%의 결혼이주여성이 경증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2011), 특히 농촌거주 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 Ahn, 2011). 그러나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울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Fenta, Hyman과 Noh (2004)는 우울 관련 및 예방 변수로 이민자의 연령, 이민의 동기, 생활 스트레스 사건, 교육 정도, 취업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등 우울의 예측인자를 제시하면서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위기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되는 한글교실, 한국 문화체험 및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사회에 되도록 빨리 완전하게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그들과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Kim, Park, & Hwang, 2009).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성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낮아 (Yang, 2006) 농촌 거주 다문화 가정에서 경직되고 혼란을 경험하는 극단형 가족 및 이탈된 가족이 많았으며, 가족 기능도 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9).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농촌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남녀 성비는 9.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

히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남성보다 한국사회 적응과 가족상담 및 교육의 필요도가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읍·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성격차이,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등에 의한 이혼·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Kim et al., 2010)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녕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Kim, 2011; Kim & Jung, 2011)를 재확인하여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우울 예방과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현재 전

남 지역에 소재한 읍·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각 국가의 언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여성을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 검정력 .9, 독립변수 7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는 130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제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출된 210명으로 하였다. 이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응답자와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206명이 본 연구에 최종으로 참여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접하면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Sand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국제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Kwon (2009)이 결혼이주여성과 개별 인터뷰하고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차별(6문항), 향수/부적응(10문항), 불안(4문항), 후회(4문항), 분노(4문항), 자녀염려(2문항)의 6개 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Kwon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였다.

####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9문항(역코딩 1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역코딩 1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7문항(역코딩 1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3) 결혼생활만족도

결혼생활만족도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묻는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결혼생활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우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도구를 Chun, Choi 와 Yang (2001)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 정서(7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신체적 저하(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우울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극히 드물게(1일 이하)' 0점, '가끔(1~2일)' 1점, '자주(3~4일)' 2점, '거의 대부분(5~7일)' 3점에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문항(4, 8, 12, 16)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총점은 0~60점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 일반적으로 CES-D점수가 16점 이상을 가능 우울증(possible depression), 21점 이상을 추정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을 확정적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으로 하여(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절단 점에 해당하는 유병률을 제시하였다. 원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기 위해 전남 지역에 소재한 읍·면 단위에 있는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복지센터 등을 자료수집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였다. 2011년 10월 10~25일의 기간 동안 훈련된 조사 설문자가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설문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보조원 중 이주민여성으로 출신국가 언어에 능통한 자가 설문지 내용을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을 도왔다. IRB 승인 절차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위험과 보상, 연구의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연구참여와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받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ffé 방법을 이용하였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및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30±5.60세였으며, 20~29세가 63.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2.10±6.10세였으며, 40~49세가 51.9%로 가장 많아 평균적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3.8세이었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 93명(45.1%), 중국 51명(24.8%), 필리핀 37명(18.0%), 일본 25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 없음을 제외한 불교가 60명(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본인 및 배우자에서 고졸이 각각 88명(42.7%), 120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직업은 노동직이 74명(35.9%)으로 많았고,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이 없다는 185명(89.8%)으로 대부분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151~200만원이 80명(38.8%)으

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거주기간은 13~24개월이 60명(29.1%)으로 많았으며 평균 국내 거주기간은 44.86개월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107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F=4.47, p=.013$ ), 배우자 직업( $F=3.06, p=.029$ ), 직업( $t=-2.32, p=.022$ ), 월 평균 수입( $F=-2.70, p=.032$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연령이 40~49세보다는 40세 이하, 배우자의 직업이 노동직 보다는 농업인 경우, 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151~200만원인 경우 우울에 대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와 우울 정도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와 우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50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82.10±20.72점이었으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향수/부적응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30.46±7.2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120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81.43±13.61점이었으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정서적 지지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30.95±5.4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각 영역별 간에 질문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척도특점의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각 항목을 10개의 질문항목으로 표준화 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자녀염려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2.67±0.85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60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18.00±9.65점으로 나타났다.

### 3.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간의 관계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 Differences of Depre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Age (year)			28.30±5.60	4.47
	20~29 <sup>a</sup>	131 (63.6)	18.21±9.70	(.013)
	30~39 <sup>b</sup>	64 (31.1)	18.98±9.58	a, b > c <sup>†</sup>
	40~49 <sup>c</sup>	11 (5.3)	9.82±5.10	
Age of husband (year)			42.10±6.10	2.14
	30~39	75 (36.4)	19.83±10.61	(.120)
	40~49	107 (51.9)	16.94±8.82	
	≥ 50	24 (11.7)	17.00±9.56	
Native country	China	51 (24.8)	16.88±9.49	1.19
	Vietnam	93 (45.1)	18.67±8.83	(.315)
	Philippines	37 (18.0)	19.49±12.12	
	Japan	25 (12.1)	15.60±8.63	
Religion	Buddhism	60 (29.1)	19.80±8.21	1.70
	Christian	44 (21.4)	15.80±10.36	(.153)
	Catholic	18 (8.7)	14.78±10.57	
	None	70 (34.0)	18.51±9.79	
	Others	14 (6.8)	18.79±10.15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31 (15.0)	20.26±9.03	1.98
	Middle school	63 (30.6)	18.73±9.51	(.119)
	High school	88 (42.7)	17.72±9.82	
	≥ College	24 (11.7)	14.21±9.53	
Education of husband	≤ Elementary school	14 (6.8)	21.79±7.69	1.24
	Middle school	22 (10.7)	20.00±8.06	(.297)
	High school	120 (58.3)	17.46±10.21	
	≥ College	50 (24.3)	17.36±9.24	
Job of husband	Farming <sup>a</sup>	47 (22.8)	21.34±10.60	3.06
	Office <sup>b</sup>	33 (16.0)	17.85±7.51	(.029)
	Labor <sup>c</sup>	74 (35.9)	15.97±8.93	a > c <sup>†</sup>
	Others <sup>d</sup>	52 (25.2)	17.96±10.33	
Job	Yes	21 (10.2)	13.43±7.86	-2.32
	No	185 (89.8)	18.52±9.71	(.022)
Family's monthly income (10,000 won)	≤ 150 <sup>a</sup>	41 (19.9)	17.15±8.82	2.70
	151~200 <sup>b</sup>	80 (38.8)	19.76±10.61	(.032)
	201~250 <sup>c</sup>	43 (20.9)	18.67±9.67	b > e <sup>†</sup>
	251~300 <sup>d</sup>	23 (11.2)	16.96±7.94	
	> 300 <sup>e</sup>	19 (9.2)	12.16±6.61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month)			44.86±40.62	0.98
	≤ 12	37 (18.0)	16.32±7.39	(.429)
	13~24	60 (29.1)	17.90±9.39	
	25~36	25 (12.1)	19.72±9.76	
	37~48	16 (7.8)	16.06±11.63	
	49~60	19 (9.2)	16.26±7.11	
	≥ 61	49 (23.8)	19.82±11.39	
Number of child			1.30±0.96	0.70
	None	34 (16.5)	16.88±6.40	(.553)
	1	107 (51.9)	17.50±9.68	
	2	42 (20.4)	19.45±11.53	
	≥ 3	23 (11.2)	19.30±9.88	

<sup>†</sup> Schffé's test.

**Table 2.** Score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Marital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N=206)

Variables	n (%)	M±SD	Min	Max	Possible range	10 Questions with standardized scores	
						M±SD	Ranking
Acculturative stress		82.10±20.72	30	146	30~150	27.37±6.91	
Discrimination		15.53±5.26	6	30	6~30	25.88±8.77	4
Homesickness/maladaptive		30.46±7.25	10	50	10~50	30.46±7.25	2
Anxiety		9.18±3.15	4	20	4~20	22.95±7.87	6
Regret		9.76±3.94	4	20	4~20	24.40±9.85	5
Anger		10.92±3.68	4	20	4~20	27.30±9.20	3
Children Concerns		6.24±2.12	2	10	2~10	31.20±10.6	1
Social support		81.43±13.61	45	117	24~120	33.93±5.67	3
Emotional support		30.95±5.46	16	45	9~45	34.39±6.07	2
Material support		12.38±2.99	5	20	4~20	30.95±7.48	5
Informative support		13.36±3.14	5	20	4~20	33.40±7.85	4
Evaluative support		24.73±4.74	11	35	7~35	35.33±6.77	1
Marital life satisfaction		2.67±0.85	1	4	1~5		
Depression		18.00±9.65	0	47	0~60		
Normal	97 (47.1)						
Possible depression	33 (16.0)						
Probable depression	29 (14.1)						
Definite depression	47 (22.8)						

**Table 3.**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Depression

(N=206)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Marital life satisfaction
	r (p)	r (p)	r (p)
Acculturative stress	1		
Social support	-.59 (< .001)	1	
Marital life satisfaction	-.29 (< .001)	.30 (< .001)	1
Depression	.52 (< .001)	-.49 (< .001)	-.19 (.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r=.52, p<.001$ ),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r=-.49, p<.001$ ),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r=-.19, p=.009$ )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단계적 변수 선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우울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된 연령, 배우자의 직업, 직업, 월 평균 소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결혼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

향력을 규명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배우자의 직업, 월 평균 소득인 명목척도의 경우에는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Durbin Watson을 이용한 오차 검정결과는 1.856으로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0.63~0.99로 0.1 이상을 보였고, VIF값은 1.04~1.7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하여 Cook's D 통계량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206개 모두가 0~0.13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분포성, 등산성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Depression

(N=206)

Variables	B <sup>†</sup>	SE	β <sup>‡</sup>	t	p	Cum. R <sup>2</sup>	F (p)
(Constant)	20.61	6.04		3.41	.001		
Acculturative stress	0.19	0.03	.41	5.88	<.001	.35	
Social support	-0.23	0.05	-.33	-4.77	<.001	.42	
Job of husband <sup>§</sup>	2.65	1.20	.12	2.20	.029	.43	50.56 (<.001)

Cum. R<sup>2</sup>=Cumulative R<sup>2</sup>.

<sup>†</sup>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up>‡</sup>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up>§</sup>Dummy variable.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검증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05로 하였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β=.41, p<.001), 사회적 지지(β=-.33, p<.001), 배우자 직업(β=.12, p<.001)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우울의 약 42.9%를 설명하고 있었고(F=50.56, p<.001), 이 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만족도,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위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울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연구대상자 201명 중 47명에서 확정적 우울증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배우자 직업, 직업, 월 평균 수입이었다.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배우자 직업,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 중 가능 우울증 이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대상자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울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Kim (2011)의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증 우울증 45.4%와 Yang과 Kim (2007)의 서울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보통 이상의 우울 증상 26.9%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사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충을 달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문화적 시설이 거의 없고, 도시와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Kim, 2011)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지만, 결혼 후 주어진 생활세계는 기존거주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세계로 혼란과 긴장의 낮은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에 혼란과 긴장을 가중시킨(Lim, 2011)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결혼이주들이 기대했던 삶과는 상이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큰 부담감으로 우울증을 초래하는 예측인자로 보고한 Hoschl 등(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농촌에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기획하고 제공이 요구되며, 이에 적절한 전문 의료인의 배치로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와 실천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은 대구·경북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2011)의 연구와 경북 경산시 보건소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Jung (201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연령은 일관되게 우울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 배우자의 평균 연령 차이가 13.8세로 이는 전국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평균 연령 차이가 약 10세인 연령(Kim et al., 2010)보다 배우자와의 평균 연령 차이가 다소 높게 나타나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연령이 20~29세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에서도 25~2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배우자 직업 및 경제력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 Jung, 2011) 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이거나 배우자 직업이 사무직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배우자 직업이 농업이거나 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정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농업의 특성상 일 년간의 노동이 투자 된 후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실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Nam & Ahn, 2011)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보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 종교 및 문화적 차이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Hoschl et al., 2008) 사료된다. 또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41%가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와 동거(Kim et al., 2010)로 농사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달리 이들의 고충을 달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문화적 시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상담할 수 있는 미흡한 환경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 접근성을 고려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스트레스 제공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았고(Nam & Ahn, 2011),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Kim 등(2010)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남편들의 자조모임이, 또한 남편과 시부모 교육 및 간담회를 열어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밝은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Han, 2011)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복되어 그 결과에 따른 중재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 접근성을 고려한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중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았고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Kim, 2011)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Lim, 2010)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Kim, 2011)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정신건강을 예방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배우자 직업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42.9%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35.1%의 설명력을 보여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울 감소를 위해서 사회적 지지와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의 예방과 경감을 위해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신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과의 관련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되며, Bae와 Park (2010)이 보고하듯이 이민자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정보 제공으로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와 사회적 지지 방안을 높이는 간호중재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직업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실제 배우자의 직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거주 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강력한 우울 예측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거주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을 경감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배우자의 정보제공과 함께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정신·심리적 영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간호중재 전략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변수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 심리사회적 중재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반복 연구를 실시해보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 J., & Park, H. (2010). Depress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Korea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67-75.
- Bhugra, D. (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9(4), 243-258.
- Chun, K. M., Choi, S. J.,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5), 363-372.
- Han, J. H. (2011). *Jeonnam,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Retrieved February 15, 2012, from <http://www.heral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
- Hoschl, C., Ruiz, P., Casas, M., Musalek, M., Gaebel, W., & Vavrusova, L. (2008). The impact of migration on mental health and mental illness. *European Psychiatry*, 23, S42.
- Huang, Y. C., & Mathers, N. J. (2008).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6), 924-931.
- Hwang, J. Y., Lee, S. E., Kim, S. H., Chung, H. W., & Kim, W. Y.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10(5), 779-785.
- Kim, H. S. (2011).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88-18.
- Kim, H. S., & Jung, Y. M. (2011).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B), 2417-2432.
- Kim, K. H., Lee, E. K., & Kim, J. S. (2011).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B), 3049-3058.
- Kim, S. K., Kim, Y. K., Cho, E. J., Kim, H. R., Lee, H. K., Seol, D. H., et al. (2010). *2009 A study of national survey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Implications and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 P., Park, H. K., & Hwang, H. S. (2009). FACES III and family APGAR score of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female migrant in Jeollanam-do provinc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3), 201-220.
- Koh, S. K., & Rhee, Y. S.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hildcare teacher's cultural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4B), 2027-2038.
- Kweon, G. Y., & Park, K. W. (2007).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Social Research*, 14, 187-219.
- Kwon, B. S.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 Lee, S. H. (2011). *The status and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in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Y. H., Shin, M. H., Kweon, S. S., Choi, S. W., Rhee, J. A., & Choi, J. S. (200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n an urban communi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3), 303-315.
- Lim, H. S. (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2), 27-45.
- Lim, H. S. (2011).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 17(3), 243-255.
- Nam, I. S., & Ahn, S. H. (2011).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2), 99-108.
- Park, J. W. (1985).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Measures, 1*, 385-401.
-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tatistics Korea. (2011). *Immigrant status (2010)*. Retrieved February 15, 2012,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cl=2819](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cl=2819)
- Yang, J. H., Park, H. J., Kim, S. S., Kang, E. J., Byun, S. H., & Bang, J. S. (2012).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2*, 36-47.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
- Yang, S. M. (2006).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e (Korea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s husband. *Journal of Rural Community, 6*(2), 151-179.